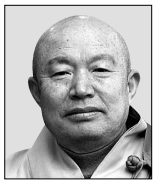


일 주 문



어르신 떡국 공양 청소년교회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5월 14일 현성정사에서 어르신 143명에게 떡국공양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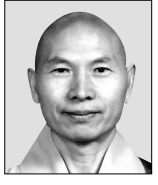
불일불교대학 개교식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9일 송광사 대웅전에서 제1회 불일불교대학 입학식 및 개교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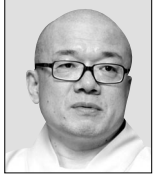
제41기 단기출가학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5일까지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출가자 접수를 받는다. 선착순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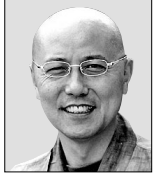
울산시복지관협회장 취임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종선 스님 5월 16일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울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유엔백사절 한국대표 참석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은 5월 8~12일 태국에서 열린 유엔백사절 기념식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부산 노인선원 개원 2주년 법회 노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5월 14일 부산본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짜찾기 기차여행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선남 선녀인연맺기 10주년 행사'로 5월 31일 충북 종단열차 짜찾기 기차여행을 개최한다.



동국대에 불자대상 상금 기부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는 5월 12일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 상금 전액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동국대 정승석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선정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5월 15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됐다. 정승석 교수는 '인도의 이원론과 요가' 연구과제로 불교의 수행 전통 뿐만 아니라 한의학, 종교학, 심리학 등 학제 간 연구의 실질적인 통로를 제시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불교학 및 동양철학분야에서 최초로 우수학자에 선정된 정승석 교수는 5년간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한국연구재단 강연에도 나선다. 노덕현 기자

“사찰과 기업 연계해 상생할 것”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신임 사장



“열악한 광주불교방송의 재정상황을 정상화하고, 지역 불교세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불교방송 신임사장에 동양건설 이민수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스님들이 방송사 사장을 맡았던 여타 지역과 달리 전문경영인의 취임에 불교세가 약한 지역불교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5월 2일 광주불교방송 신임사장에 동양건설 이민수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이민수 사장은 광주불교방송의 향후 역할에 대해 “불교방송의 역할은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호포하고 불교를 알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광주불교방송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불교계를 활성화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JC특우회 회장과 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

전문경영인 출신, 지역불교계 기대 지역불교 상생프로그램 개발 추진 호남지역 총괄 송출 시스템 마련

재 전남인라인연맹회장, 전남경영자 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의 핵심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수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역 사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릴 적 화순 개천사, 운주사 등을 다닌

인연으로 현재도 화엄사 연기암, 영암 천암사 등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장은 지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역 스님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찰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찰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데 불교방송이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 사장은 “기업과 연계된 협찬 광고를 수주해야 한다”며 “그동안 쌓은 지역 인맥과 함께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방송은 신임 사장 임명과 동시에 광주 상무지구 동양빌딩에 새사옥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설비 이전과 함께 지역 송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인사발령을 통해 광주 불교방송 총괄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제작 부장에 심창훈, 총무부장 직무대리에 김홍범, 기술부장 이재형을 임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상의 힐링, 도시민 마음다스리기에 힘쓸 터”

5월 18일 명상수련센터 상량식-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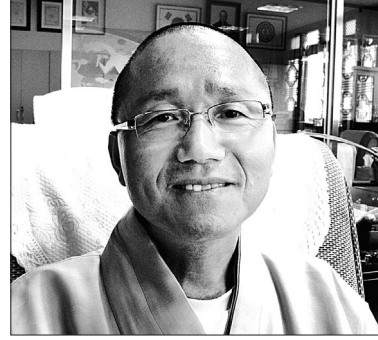
5월 18일 전통명상수련센터 상량식을 봉행한 천태종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게 해주는 최상의 수행과 힐링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개관에 앞서 해마다 전통명상과 관련한 세미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2회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보니 도시민들을 위해서는 선체협 프

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센터안에 4개의 체험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곳에서 일상속에서 나를 잊고 외부와 단절된 선체협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마음다스리기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은 당일 출퇴근 프로그램부터 1박2일, 2박 3일, 1주일 등 단기 프로그램을 주로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명상수련센터는 연면적 9329㎡에 지하3층, 지상 1층 규모이며 공사비는



120억 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각종 명상과 다도 체험, 템플스테이,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동양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울장 정신 되돌아 보는 계기 되길”

빨리어울장 최초 번역 전재성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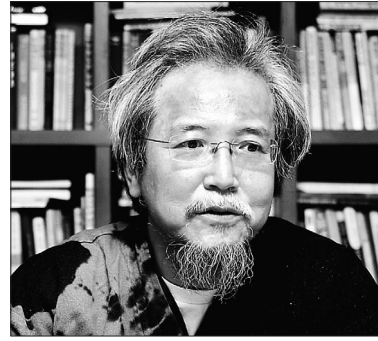
불교 규범의 근간인 울장. 남방불교에 전해 내려오는 빨리어 울장이 최초로 한글번역 됐다. 전재성 박사의 <마하박가(大品)와 쥘라박가(小品)>가 그것.

전재성 박사는 “울장은 계율 자체보다 그 계율이 어떻게 성립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라며 “한글로 번역된 원전 울장을 보며 상황에 따른 참된 계율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한국불교계는 한글대장경 중 <사분율>과 <십송율> 등 현역율장을 모두 한글로 번역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 박사는 이러한 번역본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또 “(빨리어울장)에는 부처님께서 당대의 사회상 등을 고려해 왜 그런 계율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상황이 표현돼있기에 단순한 계율 뿐만 아니라 그 계율 정신을 살릴 수 있다”며 “현재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문화 된 계율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율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끝으로 “경율론 삼장 중 제일



먼저 나왔어야 할 울장이 이제 갖춰짐으로 한국불교가 한발 더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수많은 재가수행자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진하는 스님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원학 스님 ‘동다송’ 출판강연회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11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향기로운 동다(東茶)여 깨달음의 환희(歡喜)라네> 출판 기념강연회와 저자 친필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회에는 불교TV 이사장 성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5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원학 스님은 “저는 차인(茶人)이 아니고 수행승으로서 200년 전 초의 스님이 말한 ‘격다가 곧 수행’이라는 다선일미의 정신을 현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봉사단, 생명나눔 명예의전당

동국대가 운영하는 동국참사람봉사단이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은 동국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을 홍보한 결과 희망등록자 108명을 추천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명예의전당 헌정식은 5월 17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생명존중 나눔걷기 축제’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북한, 인민생활 향상 가장 절실”

민추본 월례강좌서 정영철 교수 강조

민추본은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사건)를 초청 ‘북한 체제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월례강좌를 실시했다. 정 교수는 5월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열린 민추본 정기강좌에서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김정은 체제를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1945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체제의 성립에서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북한 사회를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은 현재 제도적 리더십은 확보한 상태”라며 “앞으로 인격적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혹인 세계화와 인민생활 향상,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발전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경제산업의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영철 교수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